

'장수군 문화관광 새로운 역사로의 도약'

'장수군 문화관광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주민 정책 제안·정책·관광자원 등 소개

장수군이 장수군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수군 문화관광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장수군은 지난 2일 한누리리전당 소공연장에서 민선7기 군민과 함께한 3년, 장수군 문화관광 새로운 역사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지역민 50여 명과 장영수 군수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방 수직이 철저히 지켜진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장영수 군수는 1부 행사에서 장수군 문화·관광과 관련한 정책 및 관광자원을 직접 소개하고 사과나무 포스트잇으로 모아진 지역민들의 질문에 하나씩 답했다.

2부에서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장수군 문화·예술·관광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과 관객들과 군수가 직접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즉문즉답이 이어졌다.

이번 콘서트는 형식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 아닌 주민들과 직접 문화·관광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채워져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주민들이 직접 군정에 제안한 내용들은 군이 문화관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지난 2일 한누리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수군 문화관광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를 열고 지역민 50여 명과 장영수 군수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이지만 우리 고장의 좋은 농특산물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문화 관광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이번 문화 관광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오(5)고 싶은 장수, 살고싶은 장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남원시의회, 가야 고분군 대한 입장문 발표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 "기문 용어 사용 신중 기할 것" 주장

남원시의회의(의장 양해석)가 최근 남원시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문' 가야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추진에 대한 입장을 지난 3일 밝혔다.

입장문은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은 2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표하였으며, 남원시가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기문' 용어의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기문'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시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시민사회에서 '기문' 용어 문제를 제기한 지 한달이 지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자체까지 문제삼는 상황에서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논란을 건설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짧은 영상물로 만나보는 소설 '혼불' 속 옛이야기

최명희문학관, 나무꾼과 개구리
신발은 야광귀 등 영상물로 제작

최명희문학관은 소설 '혼불' 속 옛이야기 두 편을 짧은 영상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문화관광협회의 지역문화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된 '동화로 읽는 혼불'을 통해서다. 제작된 영상은 '나무꾼과 개구리'와 '신발은 야광귀'다.

이에 따르면 '나무꾼과 개구리'는 혼불 제8권 233쪽부터 242쪽까지 나오며, 중독하면서도 힘이 좋은 머슴 안서방이 어린 이기체를 무동태우고 들려준 이야기다. 소설 전반에 걸쳐 말수가 적은 안서방이 그날따라 이야기꾼이라도 된 듯 감칠맛 나는 남문 사투리로 신명 나게 들려준다.

또 '야광귀' (夜光鬼) 이야기는 제9권 20쪽부터 22쪽까지 나온다. 야광귀는 음력 설날그믐날 밤에서 정월 초하룻날 새벽 사이 사람들의 신발을 물려가는 귀신이다. 소설에서도 설날그믐날 안서방네가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며 공심아에게, 율촌대이 안방에서 철재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두 차례 소개될 만큼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이번 영상물 제작은 전라북도 대표 문화 콘텐츠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제작해 더 의미가 크다. 각색은 동화작가 김근혜·이영옥·장은영 씨가 맡았으며, 창작극화



최명희문학관은 소설 '혼불' 속 옛이야기 두 편을 짧은 영상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작된 영상물 중 하나인 '나무꾼과 개구리' 영상. (사진=최명희문학관 제공)

박규현 대표와 배우 김수연·이종화·정세영 씨가 목소리를 입혔다. 디자이너 정서연·정수현 씨와 영상제작자 김연욱·전선미 씨가 삽화와 영상 편집을 책임졌다.

최기우 관장은 "소설 '혼불'에는 김시습과 민복사, 늦장가를 든 을지문덕, 진평왕과 선화공주, 단군신화, 후백제 견훤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이야기가 가득하다"면서 "소설 속 이야기를 더 많이 꺼내 다양한 매체로 각색하고 영상물로 제작해 누구나 최명희 작가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편의 영상은 최명희문학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최명희문학관 마음지리'에서 만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황희 장관, 아바타로 청년들과 소통 "청년 목소리 경청"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 청년들과 소통했다.

지난 3일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전남 화장 가상세계(메타버스) 공간 '이프랜드 (iland)'에서 열린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 캠페인 성과공유마당에 JazzyWolf라는 가상인물(아바타)로 참여해 청년들과 함께 공연을 즐겼다.

문체부는 지난 5월부터 확장 가상세계 공간 '이프랜드'에서 청년지체 적극 행정 소통 캠페인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했던 사업 중 하나인 '청춘 마이크 인 메타랜드'는 '청춘 마이크'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공연 영상을 확장 가상세계 공간에서 즐기는 콘서트다.

'나만의 예술빈상'은 청년예술인이 인용 반상 세트를 직접 제작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선물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예술인들의 작품 인지도를 높이고 나만의 예술작품을 선물 받는 특별한 경험으로 문화가 주는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춘 마이크 인 메타랜드'를 관련한 황희 장관은 그동안 캠페인에 참여한 청년들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일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공간 '이프랜드 (iland)'에서 열린 '청년이 바꿨지 - 문체부' 캠페인 성과공유마당에 JazzyWolf라는 가상인물(아바타)로 참여해 청년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소통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소감을 경청하고 예술인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황 장관은 "청년층이 직접 제안해 만들어지는 '청년에 의한 정책'과 '청년의 자치 행정'이 얼마나 신선하고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정부의 적극 행정은 청년의 제안과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남원예총 예술인대상 조복래 씨 수상



남원예총의 6개 지부(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음악협회)는 공적이 있는 회원을 추천받아 지난 8월 30일 심사에 조복래(미술)씨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남원예총의 예술인 대상은 예술인의 높은 창작의욕과 자긍심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조복래 회원은 충남 윤양, 경북 구미, 전북 남원 3개 도의 미술교류전을 추진 발족하였으며, 남원춘향미술제전을 전국춘향미술대전으로 추진 상향함으로써 예향 남원의 문화예술을 대외에 선양한 예술인으로 공이 인정되어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은 오는 10월 1일 오후 5시에 남원예술제 개막식에서 진행하며, 운영진 초대 창설회장 이 수상자에게 창작지원금 2백만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공예로 풍요로운 가을 즐기세요'

전주공예품전시관, 추석맞이 '오복다복-공예로운 가을' 기획상품전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추석맞이 '오복다복-공예로운 가을' 기획상품전을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행사 '오복다복-공예로운 가을'은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한가위기간, 품은 거리두기로 멀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민은 공예품으로 대신 전하는 취지로, '공예로 풍요로운 가을을 즐기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타이를 오복다복의 오(五)복(福)은 다섯 가지 전통문양이 의미하는 다섯 가지 복을 의미하며, 다(多)복(福)은 '모두에게 복이 전해진다'는 의미로 공예품을 통해 각자 원하는 바가 이뤄질지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공예품에 새겨진 다섯 문양은 ▲포도문: 장수 ▲모란문:부귀/영안 ▲하:가족건강 ▲달항아리:재물/행운 ▲소나무:승진을 의미한다.

기획상품은 3만원대 '청자 모란꽃 장식 육각 과반'부터 포도문양이 10만대의 포도문양이 새겨진 '솜'으로 스카프까지 다양한 가격대와 품목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획상품전을 포함해 10만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에게 10% 할인 쿠폰 또는 원형우드 트레이를 증정하는 혜택이 제공돼 쇼핑의 즐거움을 더했다. 기획상품전은 전주공예품전시관 관매관과 온라인 쇼핑몰 '명인물'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할 요청에 따라 무료로 공예품을 포장해 준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추석맞이 기획상품전 '오복다복'에 담긴 의미가 '명소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대표전화 063)227-4610 N A V E R 은혜상사(주)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